

PCRA OFFENDER SECTION

Name: _____

PACTS Number: _____

Date: _____

설명: 다음 항목들은 정확하게 답변될 경우, 귀하의 사고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. 시간을 내셔서 80개의 각 항목에 대해 아래에 정의된 4가지 평가법을 사용하여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.

4= 강력하게 동의

3= 동의

2= 확실치 않음

1= 동의하지 않음

1.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무엇도 방해가 되게 하지 않는다..... 4 3 2 1
2. 나는 살면서 겪은 문제들에 대해 사회와 외부 환경을 탓한다4 3 2 1
3. 변화한다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..... 4 3 2 1
4. 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라도, 계속 집중해서 “끝까지”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..... 4 3 2 1
5.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..... 4 3 2 1
6. 인생 문제로 고달파지면, 나는 “될 대로 되라” 하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..... 4 3 2 1
7.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모르면 불안하다..... 4 3 2 1
8. 나는 내가 저지른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“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” 라거나 “그보다는 더 잘 알았어야지”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..... 4 3 2 1
9.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하는 것이다.....4 3 2 1
10. 나는 가끔씩 말하기에 끔찍한 것을 상상해 본다..... 4 3 2 1

11. 나는 내가 미쳐 버리지 않을까 두렵다..... 4 3 2 1
12. 내 관점에서 나는 할만큼 했고,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
정당화된다.....4 3 2 1
13.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게 될 때마다, 점점 더 경찰이나 당국이 나를 절대로
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..... 4 3 2 1
14.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
생각했다..... 4 3 2 1
15. 나는 불법적으로 얻은 돈으로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도왔다..... 4 3 2 1
16. 나는 내 생각과 계획들과 관련된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 너무 늦을 때까지 비판적으로
판단하지 않는다..... 4 3 2 1
17. 은행 사장, 변호사, 정치인들이 온갖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매일 할 수 있는
세상에서 내 범죄에 대해 수감되는 것은 불공평하다.....4 3 2 1
18. 나는 사소한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언쟁한다..... 4 3 2 1
19. 나는 솔직히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희생자들의 안녕을 고려한다고 말할 수
없다..... 4 3 2 1
20.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될 때, “에라 모르겠다”라면서 무책임하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
..... 4 3 2 1
21. 새로운 도전과 상황은 나를 긴장되게 한다..... 4 3 2 1
22. 내가 범죄 때문에 잡힐 지라도, 내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감옥에 갈 리는 절대 없다고
스스로에게 납득시킨다..... 4 3 2 1
23. 나는 어떤 장기간 목표를 달성하는 내 능력에 방해가 될지라도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는
경우가 많다..... 4 3 2 1

24.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, 무력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4 3 2 1
25. 내가 범죄인으로서 살아왔지만,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..... 4 3 2 1
26. 나는 종종 활동,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하지만 절대 끝내지 못한다..... 4 3 2 1
27.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지 못하는 목소리나 비전을 본다..... 4 3 2 1
28. 하나하나 따져보면, 나는 사회에 빛진 것이 없다..... 4 3 2 1
29. 나는 누가 “고자질”만 안했으면 절대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한번 이상 했다..... 4 3 2 1
30. 나는 내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을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4 3 2 1
31. 나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술이나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 4 3 2 1
32. 나는 살면서 실수를 저질렀다..... 4 3 2 1
33. 나는 길거리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강도질하거나 훔쳐야 한다고 내자신에게 말한곤 했다..... 4 3 2 1
34. 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대화에 있어 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한 최대한 내가 통제하고 싶어한다 4 3 2 1
35. 범죄를 저지른 내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, 내 삶이 얼마나 어려웠나를 지적하면서 내 행동을 정당화시켜왔다 4 3 2 1
36. 나는 처음의 좋은 의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4 3 2 1

37. 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 후에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동물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곤 한다 4 3 2 1
38. 법이나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살아오면서 여러 번 있었다..... 4 3 2 1
39. 나는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..... 4 3 2 1
40.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..... 4 3 2 1
41.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왜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내가 무가치하게 보여야 하는가 4 3 2 1
42. 나는 내가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은 적이 자주 있었다..... 4 3 2 1
43.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4 3 2 1
44. 나는 내가 범죄 때문에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알기는 했지만, “절대 나를 잡을 수 없을 것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4 3 2 1
45. 나는 마약 판매, 주택이나 은행 강도질을 할 때 내가 안하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당화시켰다..... 4 3 2 1
46. 나는 확실치 않은 무언가에 대해 전념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..... 4 3 2 1
47. 나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마구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
48. 변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..... 4 3 2 1
49.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, 만약에 그렇게 시도한다면, 나는 협박이나 으름장으로 응답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..... 4 3 2 1
50.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 나는 “선행”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초래한 해악에 대해 보상하려고 한다..... 4 3 2 1

51. 내 생각, 아이디어, 계획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 3 2 1
52.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, 똑똑하고, 머리가 잘 돌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다..... 4 3 2 1
53. “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라는 법이 있나”라는 말을 하면서 나의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시켰다 4 3 2 1
54. 도전을 받을 때, 나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기 보다는 “그래 니 말이 맞아”라고 하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..... 4 3 2 1
55.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어려웠다 4 3 2 1
56. 내가 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4 3 2 1
57. 나는 아직도 “일반 직장일은 될 대로 되라, 그냥 한탕 해야 되겠다”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4 3 2 1
58. 나는 내 말이나 행동 중 일부를 되돌렸으면 하고 가끔씩 생각한다 4 3 2 1
59. 내 삶을 되돌아 보면, 왜 방향과 목표의 일관성이 없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4 3 2 1
60.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한테 다가온다 4 3 2 1
61. 길거리에 살면서 나는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(중독, 강제성 사용) 부정적인 증상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4 3 2 1
62. 나는 쉽게 다른 쪽으로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4 3 2 1
63. 지름길이나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, 나는 그 방법을 반드시 알아낸다 4 3 2 1
64. 내는 화나는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4 3 2 1

65.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황은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4 3 2 1
66. 약하거나 무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최악이다 4 3 2 1
67.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선행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상해 준다고 믿는다 ...4 3 2 1
68. 목표를 세울지라도,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쉽게 정신이 뺏기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3 2 1
69.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,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4 3 2 1
70. 좌절되면, “제기랄” 또는 “될 대로 되라”고 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접어버린다 4 3 2 1
71. 나는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4 3 2 1
72. 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, 내 삶이 좀 더 만족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
73. 휴가, 새 차 또는 비싼 옷과 같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기 위해 법을 어길 자격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. 4 3 2 1
74. 나는 커뮤니티에 살면서 내 행동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 본적이 거의 없었다 4 3 2 1
75. 길거리에서의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은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면서 보내졌다 4 3 2 1
76. 맨처음 법을 어길 때 나는 아주 조심스러웠지만, 시간이 흐르면서 잡히지 않게 되자, 나는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, 무엇을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 3 2 1
77. 지금 생각해 보면,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나는 상당히 착한 사람이었다4 3 2 1

78. 내 가족들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을 짰다가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마약을 사용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다 4 3 2 1
79.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루는 경향이 있다 4 3 2 1
80. 나는 좋은 행동 (한정된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)이나 다양한 상황(배우자와 다툼)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사용과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허락했다. 4 3 2 1